

라싸 종교회의 : 서기 8세기 인도와 중국 불교도들의 돈頓/정적靜寂주의 논쟁 (II) *

폴 드미에빌 (Collège de France)
(중국어 및 중국문학 정교수)

역자_김성철 (금강대 HK교수)

배재형 (성균관대 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인도근대사 지성사 전공)

차상엽 (금강대 HK교수)

제2부

역사적 해설

곳곳에 난문이 가득한 이 필사본 문치로부터, 그럼에도 상세한 해설을
요하는 몇 가지 실증적 정보들을 추려낼 수 있다. 이 정보들을 그 역사적

* 본 번역은 「라싸 종교회의 : 서기 8세기 인도와 중국 불교도들의 돈頓/정적靜寂주의 논쟁」,
『불교학리뷰』 9권(2011. 6), 267-302에 이어지는 번역이다. 원래 순서는 서문 이후에 제1부
에 왕석의 돈오대승정리결의 불역이 이어지고 있으나, 본 번역에서는 순서를 바꾸어 제2부 역
사적 해설을 먼저 번역하여 발표하기로 하였다.

배경 속에 위치시키려면 맨 먼저 논쟁의 연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티벳의 역사나 당대唐代의 티벳—중국 관계사에 관한 현재의 인식 수준을 놓고 보면 이것은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힘든, 그런 기획이다.

마하연이 두 번째 회상부에서 말하거니와, 그는 둔황에서 라싸로 불려간 뒤 그를 시험했던 티벳 왕과 자기 학설에 관해 토론하고 도처에서 설법하느라 여러 달을 보냈다고 한다. 『돈오대승정리결』 「서문」에서 본 대로 이 설법은 큰 성공을 거두어 마하연은 왕의 아내와 이모, 30여 명의 귀부인들과 티벳의 모 고위성직자, 한 씨족의 왕자¹⁾ 출신 승려를 포함해 저명한 승려들을 지지자로 얻었다. 세 번째 회상부에서 마하연이 어림잡아 그 수가 5천도 더 된다고 본, 이름 없는 문하생들을 굳이 셈할 것까지도 없다. 그는 지방을 순회하며 백성들과 관리들에게 포교하는 일도 맡았다. 티벳에 도착해 논쟁이 열리기 전까지 마하연은 이 모든 활동으로 최소 일 년에서 십증팔구 그 이상의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신申해인 어느 해, 인도 논사의 문하생들

1) 후대의 사서들은 라싸 논쟁이 벌어졌던 장소의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바세』는 티쑹데첸 왕의 오른쪽에 마하연이, 왼쪽에 까말라설라가 앉았고 각자의 제자들이 그들 뒤에 일렬로 앉아 있었다고 기술한다. 돈오의 가르침을 추종하는 이들 중에는 티쑹데첸 왕의 다섯 부인 중 한 명이었다 출가한 조모 장쑤Jo mo Byang chub, 쑤빠의 왕자였다 출가한 쑤 양다Sru Yang dag, 랑까Lang ka 등이 있었다. 점오의 가르침을 추종하는 이들은 바 뵘양dBa' dPal dbyangs과 바 래나dBa' Rad na 등이었다. 공식적 언어는 티벳어였고 통역자에 의해 주로 말해졌으며, 필요에 따라 필담을 주고받았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Wangdu, P. and Diemberger, H. *dBa' bzhed: The Royal Narrative Concerning the Bringing of the Buddha's Doctrine to Tibet*, Wien: Verlag der Österreich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2000, p.79를 참조할 것. 한편 『툽뵘공뵘뵘뵘뵘뵘Thub pa'i dgongs pa rab tu gsal ba』(붓다의 의도를 명료하게 밝힘, 彰密意論, TBRC Version), 49a6-49b1도 논쟁에 참석한 대표적 인물들을 거명하지만 그 내용은 『바세』와 약간 상이하다. 예를 들면 까말라설라의 뒤쪽에 각료 괴'Gos 등 소수가 앉았으며, 마하연의 뒤쪽에는 씨족 출신의 왕비 장쑤 bTsun mo 'Bro za Byang chub과 시중 쯔르마르마gzim mal pa gCo rma rma(원문 49b1의 /gzim/를 /gzim/으로 읽을 것) 등 많은 이들이 운집해 있었다고 적고 있다. 드미에빌이 언급한 씨족 출신의 왕자란 아마 『바세』에 등장하는 쑤 양다인 듯하다.(역주)

이 왕에게 마하연의 가르침을 금지해달라고 요구하자 마하연은 컨퍼런스의 소집을 요청한다. 그의 첫 번째 회상부는 6월 17일에 작성된 것으로 날짜가 적혀 있고, 「서문」에 따르면 논쟁은 술戌해의 정월 15일에 마하연에게 유리한 판정이 내려짐으로써 끝났다. 신해부터 술해 초까지 이어졌으니 논쟁에 소요된 시간은 1년 이상, 최장 2년이다. 적어도 3개의 세션이 이 논쟁에 담겨있었다. 2개의 문답 시리즈가 있고, 그 중 1에서 11까지 번호 매겨진 첫 번째 시리즈의 질문들이 다시 “구문舊問”과 “신문新問”으로 나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하연은 두 번째 회상부에서 자신이 사주沙州, 즉 둔황이 티베트의 수중에 막 떨어졌을 때 티베트로 불러왔다고 적는다.

티베트의 둔황 지배가 종식된 시기는 널리 알려져 있다. 둔황의 유력자인 중국인 장의조가 842년²⁾ 랑 다르마Glañ Dar-ma 왕의 사후 티베트인들 간에 벌어진 내전을 틈타 고향민들을 규합하고 티베트인들을 둔황에서 몰아낸 것이 848년³⁾의 일이다. 티베트인들의 둔황 점령이 언제 시작됐는지에 관해서라

2) 드미에빌은 랑 다르마 왕의 죽음을 842년으로 추정하지만 이는 후대 중국 사료에 의거한 추정일 뿐이다. 사토 히사시佐藤 長는 『古代チベット史研究』, 下, 京都: 同朋舎, 1959, p.696ff에서 랑 다르마 왕의 죽음을 841년으로 추정한 바 있다. 다른 한편 일부 티베트학자들은 티베트의 후대 사서들에 의거해 왕의 사망 연도를 846년으로 보기도 한다. 현재 티베트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은 843년이다.(역주)

3) 또는 덜 그럴듯하지만 850년 내지 851년이다.(Chavannes, *Dix inscriptions chinoises de l'Asie Centrale*, 80; Stein, *Serindia*, vol.1, 333; Giles, *Bulletin of the School of Oriental Studies*, VI, iv, 834; 라진옥羅振玉, 「補唐書張義潮傳」, 『雪堂叢刻』, 1914 및 『丙寅彙』에 수록된 보론, 1927 참조) 라이오닐 자일즈Lionel Giles는 슈타인 필사본 No.788과 No.3329에 의거, 둔황 탈환이 848년을 기점으로 일어났다고 본다.(*B. S. O. S.*, VII, iii, 566) No.788 필사본은 둔황에 관한 지형학적 문헌의 편린으로 자일즈가 번역, 발표했다. 이 필사본에 의하면 수창현(壽昌縣, 본서 359-360)이 848년에 장의조에 의해 탈환되었다고 한다.(*B. S. O. S.*, *ibid.*, 550) No.3329 필사본은 내가 왕중민을 통해 복사본 한 편을 구한 바 있는데, 꽤나 현학적이고 잘빠진 스타일의 산문으로 된 역사서의 편린이다. 이 필사본에는 많은 문학적 암시들이 있고, 두 단에 걸쳐 작은 글씨의 주해를 달아 이 암시들을 설명한다. 이 필사본에서 장의조는 “작고한 전임 하서절도”(故前河西節度)로 지목된다. 만일故자를 “사망

면, 그 연대를 분명하게 정하기 어렵다. 함락되기 전에도 둔황은 이미 완전하게 고립돼 있었고 중국과의 연락도 더 이상 없는 상태였기에, 둔황이 함락될 당시의 상황에 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중국에서 얻기란 난망한 일이다. 중국 사료들은 심지어 그 중 일부가 둔황 함락과 거의 동시대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둔황 함락 연대에 대해서는 부정확하거나 상충하는 정보들만을 전할 따름이다.

755-756년 중국을 뒤흔들고 당 왕조를 파멸 직전까지 몰고 갔던 안록산의 난은 중국 북서부에서 티베트의 도발을 재촉했다. 서쪽 변경의 중국 수비대가 소요 사태의 진압에 투입되기 위해 중원으로 긴급 호출되면서 티베트인들에게 자유롭게 침입할 수 있는 길을 내준 것이다.⁴⁾ 763년에 티베트 유목민

한”의 의미로 읽어야 한다면, 이는 곧 이 필사본이 장의조의 죽음(872년) 이후, 아니면 최소한 장의조의 퇴역(867년) 후에 작성됐다는 말이다. 여기에 이르기를, 장의조는 848년 둔황과 진창, (즉 沙州와 瓜州)를 탈환한 다음 그 해에 고진달高進達과 그 일행 편으로 장안의 황제에게 한 통의 표문表文을 올렸고, 이에 황제는 장의조에게 병부상서직과 함께 만호의 영지를 수여했다고 한다.(燉煌晉昌收復已訖, 時當大中二載, 題牋脩表紆道馳函, 沙州既破吐蕃, 大中二年, 遂差押衙高進達等, 馳表函入長安城, 已[以로 읽을 것]獻天子.[문본 가운데 위치한 소문자 주해] 上達天聞, 皇明披覽 … 便降駟騎 … 使送河西旌節, 賞賚勳慰諭邊庭收復之事, 授兵部尚書萬戶侯 …) 이 필사본의 정보들 거의 전부가 라진옥이 「보당서장의조전」을 쓰기 위해 수집해 둔 사료의 정보들과 모순된다. 이 사료에 따르면 장의조는 “하서” 절도사가 아니라 귀의군歸義軍 절도사에 임명됐던 것이고, 그에게 수여된 관직도 병부상서가 아니라 이부상서吏部尚書이며, 그 영지는 1만호가 아니라 명목상 2천호, 실제로는 3백호라는 등등이 그렇다. 그렇지만 대중大中 연간(847-860) 오진眞이 작성한, 장의조를 칭송하는 한 시문집 서문 속에서 장의조는 역시 하서 절도사로 칭해진다.(P. 3554 : 河西道節度公) 오진이라는 이 승려가 명을 받아 851년 장안에 갔을 때 종교계 및 관계官界의 여러 인사들이 오진에게 헌정한 어느 시집 첫 대목에 오진의 약력을 소개한 글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장의조는 하서 절도로 불린다.(P. 3720 : 前河西節度故太保; 이 책 252, 주 4번) 둔황에서 장의조는 황실 상서국이 851년에 내려 그를 기렸던 특별한 직함으로보다 차라리 하서의 절도사로 알려졌던 것 같다.〔「보유」, 본서 358-359, 380참조〕

4) 『자치통감』, 제222권, 48a에서 사마광司馬光은 군軍절도사들의 설치, 매년 산둥山東에서 부대를 뽑아 수비대로 파견한 것, 변경 수비대들이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땅을 개간했던 것 등,

무리는 장안까지 쇄도한다. 그들은 13일 간⁵⁾ 장안을 점령하고 자신들의 선 대왕과 혼인했던 중국 공주의 형제 한 명을 “꼭두각시” 황제로 즉위시킨다.⁶⁾ 연호를 채택하고 관리와 대신들을 임명한 다음 그들은 겁에 질려 부랴 부랴 서쪽으로 퇴각하지만, 둔황 지역으로는 들어서지 않는다.⁷⁾ 우리가 아는 바, 란주蘭州에서 출발해 하미Hami로 향하는 ‘세랑드Sérinde’⁸⁾의 장대한 여로에서 동쪽의 양주(涼州, 지금의 감숙성甘肅省, 무위武威)는 764년

-
- 755년까지의 당대 북서 변경의 방어조직을 묘사한다.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인다. “안록산의 난 당시 이 부대들 중 정예군은 모두 내륙으로 호출되었다. 이른바 행영行營이라 불린 부대들이다. 변경에는 고작 오합지졸들만 남겨졌는데, 야만인들이 이들을 조금씩 잡아먹은 결과 수 년 새 수십에 이르는 북서부의 주들을 차례로 잃었다. 그리하여 봉상鳳翔 서쪽과 빈주邢州 북쪽 전 지역에서 사람들은 겹옷 앞자락을 왼쪽으로 겹쳐 입게 되었다.”(말인즉, 이 지역이 야만인들, 특히 티벳인들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됐다는 것이다.) 이 구절은 『구』, 제196권 상, 9a, 버셀 역, 475에서 재발견된다. 『당서』, 제216권 상, 8a 참조. 본서 300, 주 1번도 참조할 것.
- 5) 『토번열전吐蕃列傳』에 따르면 15일간이다. 하지만 『구』, 제11권, 3b와 본서 171, 주 3번도 참조할 것.
- 6) 한 중국인 “반역자”를 보살피 준 덕분에 장안에서 티벳 장수에 의해 황제로 임명된 광무왕廣武王 승평承宏은 옹왕 수례의 아들 중 한명이었으니, 따라서 그는 금성공주의 형제였고, 티벳에서 상상했듯이 당시 티벳의 군주가 금성공주의 아들이라면 티벳 왕에게는 외삼촌이었다.(본서 1, 주 2번 참조) 『당』, 제81권, 3b, 제216권 상, 8b; 『구』, 제86권, 5b, 제196권 상, 9a(버셀, 476) 참조. 『구당서』, 제196권 상, 9a에서 수례는 빈왕邢王이라는 다른 작위로 칭해진다. 사마광은 승평을 빈왕 수례의 손자로 본다. 『자』, 제223권, 49b.
- 7) 본서 171, 주 3번 참조.
- 8) 불어로 세랑드, 영어로 세린디아Serindia는 중국을 의미하는 ‘세레스Seres’와 인도(Inde/India)를 합한 조어다. 세레스란 누에 혹은 비단을 의미하는 라틴어로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 파우사니아스Pausanias(ca.180 C.E.)가 중국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였다. 이에 착안하여 세랑드/세린디아란 말을 만든 사람이 바로 헝가리 출신의 고고학자이자 탐험가인 슈타인 경(Sir Aurel Stein, 1862–1943)이다. 그는 20세기 초 세 차례에 걸쳐 장대한 중앙아시아의 실크로드 지역을 탐험한 성과를 *Serindia, Detailed Report of Explorations in Central Asia and Westernmost China*(5 vols, Oxford, 1921)로 출간했는데, 이것이 세린디아라는 용어의 시작이 되었다. 지리적으로 세린디아는 남쪽으로는 히말라야 산맥과 파미르 고원, 북쪽으로는 몽고의 스텝 지역, 동쪽으로는 둔황과 서안, 서쪽으로는 카스피해에 이르는 지역 전체를 지시하며, 그 중심에 실크로드가 있다.(역주)

에 함락됐고,⁹⁾ 이주(伊州, 지금의 신강 자치구, 하미, 哈密)는 오랜 포위 공격 후, 짐작컨대 그로부터 약 15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굴복했다.¹⁰⁾ 이들

- 9) 양주에 주재했던 하서의 도도 절도사는 양주를 포위한 티벳인들에게 (“수년 간”, 『구』, 제196권 상, 10a, 버셀, 479) 저항했다. 764년 양주가 완전 고립되자 절도사는 감주甘州로 피신했는데, 이는 감주성을 “지키기 위해서”(保)였다고 『당서』, 제216권 상, 8b는 덧붙인다. 따라서 감주는 당시 아직 중국인들의 수중에 있었다. 『자치통감』, 제223권, 53b-54a는 이상의 몇몇 정보들과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는 듯 보이지만, 그러나 양주의 함락 연대에 관해서만큼은 일치한다. 더구나 『원화군현지元和郡縣志』, 제40권, 2a가 이 연대를 확인해 준다. 본서 305, 주 참조.
- 10) 하네다Haneda가 (『小川博士還曆記念史學志學論叢』, 교토, 1930, 135에) 발표하고 자일즈가 (“A Chinese geographical text of the Ninth Century”, *B. S. O. S.*, VI, 834에서) 번역한 바 있는 슈타인 필사본 No.367(서력 기원 886년)에 따르면, (8세기에 하서에 속했고 따라서 엄연한 중국 영토였던) 이주伊州는 762년에 함락됐다고 한다. 그러나 이 연대는 공식 역사와 그다지 일치하지 않는다. 공식 역사에서 이주가 당한 공격은 이伊[주](Hami, 哈密)와 서西[주](투르판Tourfan 지역) 및 북정(北庭, 투르판 북쪽의 구청즈古城子 지역)의 절도사 이원충李元忠과 사진(四鎮: 쿠차Koutcha, 코탄Khotan, 카슈가르Kachgar, 카라샤르Karachar 또는 토크막Tokmak)의 절도유후節度留後 곽흔郭昕이 파견한 특사가 781년 장안에 도착했을 때 소상히 알려진다. 곽흔은 순례자 오공悟空이 788년경 쿠차를 거쳐 갔을 당시에도 그곳에서 재차 보았던 인물이다.(Chavannes et Lévi, *J. As.*, 1895, ii, 363) 티벳인들이 관롱關隴(여러 사료들에 나오는 이명異名으로, 또 다른 사료들에 나온 하룽河隴-河西와 隴右-보다는 이 지명을 선택해야 한다.), 즉 관내關內(지금의 협서陝西省 북부, 감숙성 남동부, Ningxia 寧夏 남부)와 룡우隴右(지금의 감숙성 남서부, 청해 북동부)에 침입한 이래, 이 두 인물은 자신들이 다스리던 지역을 지켜내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중국과의 연락이 두절되어 10년 넘도록 그들로부터 소식이 없는 상태였다. 수차례의 시도가 있고 나서야 그들의 특사들 중 한 명이 위구르와 티벳의 모든 전선을 돌파하고 781년 7월 20일 장안에 당도하는 데 겨우 성공했던 것이다. 이들의 결사 항전에 대한 포상으로 781년 7월 26일 해당 관리들이 승진되었다. (『구』, 제12권, 百衲本, 7b와 『당회요』, 제73권, 28b-29a의 칙령) 고故 이주 자사刺史 원광정袁光庭 역시 15일 뒤인 8월 13일에 사후 추증됐다. 투르케스탄Turkestan에서 온 저 특사가 전했던 그의 영웅적 행동은 이러하다. 수년간의 봉쇄 끝에 식량 및 군비 부족으로 이주가 꼼짝없이 항복할 수밖에 없게 되자, 그는 적에게 항복하느니 처자식들을 죽인 뒤 자결했다. (『구』, 제12권, 5b, 제120권, 11b-12a, 제187권 하, 8a; 『당』, 제193권, 1a-b; 『자치통감』, 제227권, 20b-21a) 그렇다면 결국 이주는 781년에 이미 점령된 상태였던 것이니, 절도사 이원충이 이주의 명칭을 자신의 공식 직함에 여전히 내걸었던 것은 아마도 명목상 그러했던 것일 게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만일 이주가 관내와 룡우의 정복 후에 수년 동안 항전했

양 끝 두 지점 사이에 동서로 늘어선 성城들은 모두 하서절도사¹¹⁾의 관할 하에 있던 곳들이다. 감주(甘州, 지금의 張掖)성과 숙주(肅州, 지금의 酒泉)성,¹²⁾ 그리고 더 멀게는 소록(疏勒, 카슈가르)을 옥토로 만든 회랑지대의 과주瓜州 오아시스. 과주는 현재의 안서 남쪽에 위치한 성으로, 세랑드 길이 북쪽과 서쪽으로 갈라지는 곳이었다. 그리고 사주성, 즉 지금의 둔황이 있다. 이 성들은 더 오랫동안 항전했다. 이 성들, 특히 과주와 사주는 오지일 뿐 아니라 접근을 가로막는 사막지대에 위치한 덕분에 수성守城되었다.¹³⁾ 과주는 776년에 가서야 함락됐으리라.¹⁴⁾ 둔황의 함락에 관해서라면,

다면 762년에 이주가 갑자기 함락됐을 리 없다. 이주의 지명은 『자치통감』, 제231권, 57a의 문구에서, 784년에 다시 나타난다. 이 문구는 샤반(스)Chavannes의 번역으로 슈타인의 *Ancient Khotan*, 535에 수록돼 있다. 문구의 내용은 784년 초 주자朱泚의 반란 당시 티벳이 도움을 준 댓가로 중국이 티벳인들에게 땅을 주기로 약조했으나(본서 177, 주 1번, 182, 주 3번, 291, 주 1번), 784년 8월 11일 티벳인들이 그 땅을 요구하러 오며 황제가 땅을 넘기길 거부했다는 것이다. 『자치통감』에 따르면 문제의 땅은 이주, 서주, 북정(伊西北庭) 지역이었다. 황제는 관혼과 이충원을 내륙으로 불러들이고 티벳인들에게 “양진兩鎮”을 넘기고 싶었지만 한 대신의 조언으로 단념했다. 그러나 여기서 이서伊西는 “당서”가 확인하듯이 안서安西의 오자이고 “양진”이란 안서(쿠차, 龜茲)와 북정(古城)을 가리켰다. 『당서』, 제139권, 5a와 제216권 하, 2a에서 안서북정安西北庭으로 표기한 것을 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자치통감』 역시 동일 텍스트의 후미에서 그렇게 표기한다. 784년에 중국이 하미를 더 이상 관리할 수 없었던 건 확실한 것 같다. 당시는 중국이 하미를 상실한 지 수년이 지난 뒤였다.

『문원영화』, 제169권, 7a-10b(와 『전당문』, 제464권, 3a-8b)에는 덕종 황제가 786년경 상결찬尙結贊과 티벳의 여러 대신들에게 보낸 일련의 서한들이 있다. 육지陸贄가 작성한 이 서한들은 784년의 반란 진압에 티벳인들이 기여한 대가로 중국이 약조한 “사진”(四鎮 : 쿠차, 카라샤르, 코탄, 카슈가르)과 북정(古城)을 티벳에 할양하는 문제를 논한다.

- 11) 河西節度使, 710년경 설치. R. des Rotours, “Les grands fonctionnaires des provinces …”, *T. P.*, XXV, 73, *Traité des fonctionnaires*…, 803, n.1, 821, n.3; 岩佐精一朗, “河西節度使の起源に就いて”, 『東洋學報』, 제23권, 제2호, 1936년 2월; 본서 359 참조.
- 12) 『원화군현지』, 제40권, 3b, 5b에 따르면 감주는 766년(영태永泰 2년, 766년 2월 14일-12월 17일)에 함락됐고, 숙주는 동년 내지 이듬해 초(대력大歷 원년, 766년 12월 17일-767년 2월 3일, 『구』, 제11권, 8b, 3 참조)에 함락됐다.
- 13) 공식 역사는 758년부터 시작해 수년 사이에 티벳인들이 북서 지역의 “수십 개 주들”을 정복

하고 봉상鳳翔의 서쪽과 빈주邠州의 북쪽 지역 전부를 점령했다고 전한다.([『구』, 제196권 상, 9a, 버셀, 475; 『자치통감』, 제222권, 48a, 본서 169, 주 1번) 이 지형적 정보가 정확하지 못하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도를 일별해보는 것으로 족하다. 봉상과 빈주는 모두 장안 서쪽으로 100여 킬로미터 떨어진 협서陝西에 위치해 있으니 말이다. 763년 장안을 습격했을 당시 티벳인들은 진주(秦州, 지금의 감숙甘肅 천수天水, 장안 서쪽의 협서와 인접한 주), 성주(成州, 진주의 남쪽), 위주(渭州, 감숙 평량平涼, 장안의 북서쪽)를 먼저 점령하면서 감숙 남동부를 통해 장안에 이르렀다. 하지만 그들은 장안으로 진군하기에 앞서 서쪽으로 회군하더니 룡산의 길목(大震關)을 가로질러 란주와 룡우도隴右道 전체를 점령했다. 자신들의 배후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런 다음 그들은 경하涇河 계곡을 따라 흐르는 경천涇川과 (경하 유역의) 빈주를 거쳐 장안으로 진격했다.([『구』, 제11권, 3b, 제196권 상, 9a; 『당』, 제6권, 6a, 제216권 상, 8a) 티벳인들은 763년 11월 18일에 장안으로 들어갔고 동월 30일 장안을 떠났다.([『자치통감』, 제223권, 49b-50a) 그들은 장안을 떠나 감숙 남동부로 돌아가 원주(原州, 鎭原, 장안 북서쪽의 평량平涼인근), 회주(會州, 靖遠, 원주보다 먼 북서쪽의 주), 성주(회주 남쪽), 위주(평량)에 진을 쳤다.([『구』, 제196권 상, 10a; 『당』, 제216권 상, 8b; 『자치통감』, 제223권, 51a) 티벳인들이 둔황으로 가는 통로인 감숙 북서 지역으로 들어갔다고 말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그러니 사마광이 『자치통감』, 제223권, 48a에서 『(신)당서』(제216권 상, 8a, 13)가 전하는 대로 763년 티벳인들이 룡우 전역을 점령했음은 물론이고, 나아가 하서의 전 지역, 즉 양주에서 시작해 둔황으로 가는 길에 있던 모든 성들까지도 점령했다(盡取河西隴右之地)고 말할 때, 그는 분명 과도한 일반화를 범하고 있다. 『당서』, 제216권 상, 8a의 기록은 보다 더 정확하다. 이에 따르면 티벳인들은 (762년에, 본서 300, 주 1번 참조) 협서와 맞닿은 감숙 남동부에 위치한 주들인 진秦과 성成과 위渭를, 이어 764년에 (지금의 감숙과 협서의 경계, 룡산 기슭의) 대진관, 란주(蘭州, 지금의 阜蘭, 청대清代의 蘭州), 하주(河州, 역시 阜蘭), 선주(鄯州, 지금의 樂都, 청해 동부, 감숙 인근), 조주(洮州, 臨潭, 阜蘭 남쪽)를 점령하여 룡우 전역을 손에 넣기에 이르렀다(於是隴右地盡亡) 한다. 심지어 783년 감숙 남동부의 청수清水에서 조약을 체결해 중국과 티벳의 영토가 각각 어디까지인지 그 경계를 정했을 때에도 하서 지역은 조약에서 논외였고, 둔황은 다음 조항이 적용됐던 곳들 중 하나였음에 틀림없다. “체결된 조약 문안에 거론되지 않은 지역들에 관해서는, 티벳 군대가 주둔한 곳은 티벳인들의 관할 하에, 중국 군대가 주둔한 곳은 중국의 관할 하에 있을 것이다. 양측은 각기 자신들이 현재 지키고 있는 곳을 유지한다.…”([『구』, 제196권 하, 2b, 버셀, 489; 『책』, 제981권, 12a; 『당대조령집』, 제129권, 10a)

- 14) 『원화군현지』, 제40권, 8a, 그리고 이어서 서송(徐松, 1781-1848)의 『서역수도기西域水道記』, 『皇朝藩屬輿地叢書』, 제3집, 9a, 『원화군현지』, 제40권, 3b-5b에 따르면 감주와 숙주는 766년에 함락됐다. 티벳의 정복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행됐는데, 이는 필시 이 벽지의 주들과 증원 사이의 연락을 차단하려는 전략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서의 남동부에 위치한 룡

이 성이 항복하기 전에 겪었던 포위 공격에 관한, 아쉽게도 연대 미상인 한편의 이야기가 『당서』에 전한다.¹⁵⁾ 둔황의 첫 수비대장은 황제가 정식으로 임명한 자사刺史이자 하서의 절도사¹⁶⁾이기도 한 주정周鼎이었다. 티벳 왕

우가 하서보다 먼저 공격당했던 것, 이 침입이 동에서 서로 진행됐던 것 역시 아마 똑같은 동기에서일 것이다.

- 15) 『당』, 제216권 하, 5a-b, 버셀, 514; 자일즈의 번역, "A topographical fragment from Tun-huang", *B. S. O. S.*, VII, iii, 558. 중국 역사가들이 흔히 취하는 상투적 기법을 좇아, 이 이야기는 819년을 배경으로 이 해에 염주(鹽州, 지금의 寧夏, 鹽池) 공격에 참가했던 티벳 대신 상결심아(尙乞心兒, *Ṣaṅ Khri-sum-rje*, 상 티숨제)에 관한 회고담 형식을 띠고 소개된다. 상결심아는 과거 사주 공격을 이끌었던 바로 그 인물이지만, 그의 이름이 『구당서』와 『신당서』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은 819년의 염주 공격에 관한 대목이다. 라이오닐 자일즈는 819년이 사주(둔황) 공격과 관련이 있는 해라 믿었고, 이런 믿음 때문에 819년에 티벳인들이 사주를 재정복했다고 가정하기에 이르렀다. 다시 말해 809년경 중국인들이 사주를 티벳인들로부터 되찾아왔고 819년에는 다시 티벳인들이 사주를 재정복했을 거라는 말이다. 마찬가지로 토마스Thomas도 저 잘못된 해석 때문에 이런 추론이 가능하다고 믿었다. (*J. R. A. S.*, 1927, 815와 1934, 93) 이런 식의 이야기는 중국 사료에 일반반구도 없다. 『신당서』에서 819년의 시점에 소개돼 있는 둔황 함락에 관한 그 이야기는 『구당서』에도 『자치통감』에도 나오지 않는다. 『신당서』의 작가들은 송형宋衡 같은 몇몇 생존자들의 보고를 통해 그 이야기를 접했을 터, 그러나 그들은 그 이야기를 연대상 어디쯤에 놓아야 할지 잘 알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둔황의 함락 시기를 정하는 데 이용했던 공식 사료들은 [둔황보다] 더 남쪽에 있고 장안의 서쪽 방향에 위치하여 중국 중심부와 장안의 더 직접적 관심사였던 또 다른 한 지역(즉 염주: 역자)에서 티벳과 벌인 전쟁들에 관련된 것들이었으니 말이다. 그들은 감숙 서쪽의 협곡(즉 둔황: 역자)에 대해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전혀 몰랐다. 아마도 이런 이유에서 그들은 지극히 부자연스럽게도 상결심아의 이름을 최초로 언급하는 대목에 이 이야기를 붙여두었던 것이다.
- 16) 양주가 함락되자(764년, 본서 169, 주 5번) 하서 절도사의 소재지는 766년에 사실상 사주로 옮겨졌다. (『당』, 제67권, 6b, 『자치통감』, 제224권, 15b) 주정 사후에 존호를 내린 782년의 칙령에서 그는 하서 절도사로 불리고 있다. (『구』, 제12권, 7a) 776년에 둔황 천불동千佛洞의 어느 묘석에 새겨진 이태빈李太賓의 비문에서는 그가 절도관찰처지사節度觀察處置使라는 직위에 있었던 것으로 언급된다. 다음을 참조하라. 『沙州文錄』, 장부蔣斧 편집본(『敦煌石室遺書』, 1909에 수록), 6a; 라진옥 편집본(1924), 4a; 이태빈의 비문 내용은 라진옥에 의해 『西陲石刻錄』, 1914(『雲窗叢刻』, 19a 및 그 이하)에도 마찬가지로 전제돼 있다.

은 바야흐로 둔황 남쪽의 남산南山 일대에 진치고 있었다. 그는 주정을 공격하기 위해 장수들 중에서도 정치 군사적으로 그 장래가 유망했던 상 티쑤제(Žaň Khri sum-rje, 尚乞心兒)¹⁷⁾를 보냈다. 주정은 위구르족에게 도움을 청하고 일 년 넘도록 답을 기다리지만 허사였다. 그래서 그는 성을 소각하고 마을을 비운 뒤 주민들과 동쪽으로 탈출할 궁리를 하지만 이 계획은 성사되기 어렵다.¹⁸⁾ 그에게 남은 것이라곤 버티기 위해 진지를 구축하는 일 뿐. 주정은 식수와 마량馬糧을 얻고자 휘하의 군관들 중 한 명에게 정예부대를 맡겨 돌파를 시도한다. 이 군관은 이를 이용해 자신의 상관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킨다. 반란은 둔황 같은 오지의 주둔군 내에서 흔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그는 주정을 교살하고 둔황의 통치권을 손에 넣고, 계속 완강하게 성을 지키려 한다. 8년의 봉쇄 끝에 비단과 맛바꾸어 곡물을 얻는 데 성공하고, 이제 이 사이비 통치자는 죽을 때까지 항전할 준비가 되었다고 선언한다. 하지만 그로부터 2년 뒤, 둔황은 비축해 둔 식량과 군비가 바닥난다. 이 찬탈자는 주민들이 티벳으로 압송되지 않을 것¹⁹⁾이란 보장을 받은 다음 상 티쑤제에게 항복하고, 티벳 왕은 그 자리에 상 티쑤제를 임명한다. 물론 신임 티벳인 통치자는 조금도 신뢰할 수 없었던 중국인 전임자를 지체 없이 독살한다. 『당서』는 모두 합해 11년 동안 둔황이 공격을 견디었다고 덧붙인다. 그러니까, 더할 나위 없이 분명한 그 이야기를 간추리면 주정의 통치 아래 1년, 찬탈자의 통치 아래 8년 하고도 2년을 더해 10년이라는 이야기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아는 바 주정은 776년과

17) 이 인물에 대해서는 본서 281 및 그 이하를 참조하라.

18) 둔황과 중국을 연결하는 길에 위치한 모든 관문은 당시 티벳인들의 수중에 있었다. 동쪽 방면의 퇴로는 막혀 있었다.

19) 티벳인들에게는 자신들이 점령한 중국의 성이나 진鎭을 파괴하고 주민들 중에서 건강한 자들은 모두 데려가는 관습이 있었다. 건강한 장정들은 티벳 군대로, 특히 안내인으로 강제 징집되었고, 노예가 된 아낙네와 아이들은 볼모로 감시당했다. 병자와 노약자들은 버려지거나 불구가 되었고, 그도 아니면 학살되었다.(예컨대 버셀, 상기 인용서, 475, 500-503 참조)

782년 사이, 아마도 777년쯤에 죽었다. 776년에 둔황 천불동 앞에 세워진 한 묘석의 비문²⁰⁾이 단서다. 중국식 연호가 적힌 이 비문은 어느 지역 유지가 성소로 정비한 천불동의 한 동굴 축성식에 통치자 자격으로 참석한 주정을 기린 것으로, 티벳인들에 대해서는 일말의 암시도 없다. 한편 782년에는 티벳인들이 주정의 시신을 756년 이래 중국-티벳 전쟁에서 죽은 다른 중국 관리들의 시신과 더불어 중국 당국에 반환했다.²¹⁾ 그의 시신은 중국 땅에 묻혔고, 황제는 작위를 내려 “서쪽 국경을 굳건히 지켰고 노예나 다름없는 야만족들에 항전하다가 객지에서 죽은” 그를 위대한 수호자(太保)로 추존했다. 마지막으로, 주정의 수하들 중 한 명인 송형宋衡이 777년 말²²⁾에 장안으로 돌아왔다. 송형은 당나라 궁정에서 가장 높은 고관들 중 한 명이자 가장 뛰어난 문인들 중 한 명인 송경宋璟²³⁾의 아들이지만, 못된 행실로 왕의 눈 밖에 나서 벌을 받아 둔황으로 좌천당한 처지였다.²⁴⁾ 송경의 벗들 중 한 명인 또 다른 유명한 문인은 수 개월 뒤 적힌 한 비문²⁵⁾에서 이 귀환의

20) 이태빈 비문, 본서 173, 주 1번.

21) 782년 6월 29일의 칙령. 『구』, 제12권, 7a. 782년에 티벳인들은 이 시신들을 반환함과 동시에, 779-780년에 중국이 티벳인 포로들을 돌려보낸 댓가로, 중국인 생존 포로들도 석방했을 것이다. 티벳에서 방면된 중국인 포로들은 786년 5월 24일 장안에 도착했다. (『구』, *ibid.*, 6b; 본서 183, n.4 참조)

22) 대력大歷 12년 11월. 778년* 11월 24일 - 12월 23일. *777년의 오기로 보인다. (역주)

23) 宋璟(663-737). 예종의 재위시 삼사행상서三司行尙書, 현종 재위시에는 형부상서와 재상을 역임했다.

24) 『구』, 제96권, 7a-b에 따르면 송형은 독직瀆職을 범했다는 이유로 좌천되었다. 송경의 아들들은 모두 술독에 빠지고 여색을 탐하는 인간말종이라 비난당했지만, 그중에서도 명망 높은 아버지의 덕행과 가르침을 가장 뽐뽐하게 배반한 이는 바로 송형이었던 것 같다.

25) 엄진경嚴眞卿(784년, 『자치통감고이』, 제18권, 10b 참조)이 쓴 것으로, 778년 4월(또는 5월)에 송경의 혼로비魂路碑 측면들 중 한 면에 작성된 비문이다. 『金石萃編』, 제97권, 3a. 엄진경은 770-772년에 이 비석의 본문을 썼고, 얼마 후 측면에 비문을 쓰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떤 사정에서인지 이 측면의 비문을 새기는 작업이 지체되었다. 이 작업은 778년 초에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엄진경은 이런 지연을 틈타 송경의 아들이 국경에서 한 홀랑한

사정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송형은 좌천되어 부관²⁶⁾으로 사주(둔황)에 있었다. 북서부 국경인 하서와 퉁우²⁷⁾를 침탈당했을 때 그는 티벳인들을 상대함에서 뛰어나²⁸⁾ 군공軍功의 대가로 공부랑중工部郎中 겸 구임어사口任御史...²⁹⁾와 하서절도의 행마사마行馬司馬³⁰⁾직에 등용되었다. 그는 절도사 주정과 함께 근 10년 이상 둔황을 지켰고,³¹⁾ 바야흐로 중승상시中丞常侍³²⁾로 임명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황제의 임명장이 그에게 당도하기 전에 티벳인들이 둔황을 포위해버렸다. 무기와 화살이 부족해지면서 둔황은 도적(놈)들의 손아귀에 들어갔다. 허나 티벳인들은 일찍이 그 부친의 고매한 덕성을 들은 바 있어 이렇게 말했다. “당唐의 천자는 우리의 외삼촌/장인이고 송형의 부친은 그의 어진 재상들 중 한 분이셨다. 여기, 불운의 희생자가 있으니, 우리가 어찌 그를 포로로 잡아 가두겠는가?” 티벳인들은 짐을 나를 가축과 말³³⁾을 주어 송형을 돌려보냈다. 777년 12월, 그는 200의 기병들 및 온 가족과 함께 귀환에 성공했다. [이는] 일찍이 유례가 없는 놀라운 일로, 선량한 못 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냈다.³⁴⁾ 황제는 송

행동과 둔황에서 귀환한 뒤 황궁에서 그를 복권했음을 기념하는 한 대목을 덧붙였다. 비문은 그 직후에 새겨졌다.(『金石萃編』의 설명들을 참조)

26) 참좌용막參佐戎幕.

27) 하룡河隴

28) 개우토변介于吐蕃. 송형이 티벳인들과 중국인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거나, 티벳 대표단을 중국 당국에 소개했던 것으로 이해함직하다. 하지만 여기서의 소개는 경개耿介[바르고 곧다, 강직하다.(역주)]에서의 ‘개’와 같은 뜻일 수도 있다.

29) 결락.

30) 혹은 행군行軍..., 河西節度行軍司馬.

31) 保守燉煌僅十餘歲.

32) 中丞常侍. 『당서』, 제75권 상, 40a의 계보표에는 송형의 이 마지막 직위에 檢校左散騎常侍라는 명예직이 더해진다.

33) 또는 낙타와 말(駝馬). 더 그럴듯한 해석이다.

34) 송형의 공적에 대한 찬사이지만, 티벳 야만인들의 이례적 관대함에 대한 감탄이기도 하다.

형에게 특별한 포상을 내리고자 했으므로, 그에게 측문側門에서 칙령의 반포를 기다리게 했다.³⁵⁾

송형의 부친에게는 막역한 벗이었던 만큼 그 증언이 더 무게를 갖는 중앙 행정부의 최고위관리³⁶⁾가 송형의 귀환 직후 작성한 이 비문에 따르면, 주정이 지킨 둔황은 10여 년 넘는 세월을 버티다 777년에 함락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증언은 역시 증언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는 『당서』의 이야기와도, 천불동의 비문과도 한참 어긋난다. 만일 주정과 송형이 10년간 둔황을 “지켰다”면 이는 아마도 둔황이 완전히 포위당하기에 앞서 빈번히 이어진 티벳의 침입에 대항했다는 말에 불과할 것이다. 게다가 “지키다”³⁷⁾라는 표현은 중국어로 그저 “감시하다, 지키다”의 의미일 수 있다. 또 중국으로 돌아온 송형이 했던 이야기에서 둔황이 “도적놈들”의 수중에 “떨어졌다”³⁸⁾는 말은 어쩌면 자기 동료인 공식 절도사 주정의 몰락을 뜻했던 것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반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한, 틀림없이 현지의 그렇고 그런 혼혈인 용병이었을 어느 부하는 황실의 먼 친척인 송형 같은 순혈 중국인에게 통상 중국인들이 적대자를 그렇게 부르듯 일개 “도적놈”처럼 여겨질 수 있었으니 말이다.³⁹⁾

35) 待制於側門. 777년 5월 23일의 한 칙령에 따르면 이후 몇몇 관리들은 사사로이 황제를 알현하여 국정을 보고하거나 당면 현안을 논하는 것이 허락됐다. 황제를 알현하기 전에 관리들이 대기했던 문이 바로 측문이다. (『당』, 제6권, 9a)

36) 이 비문을 썼을 당시 엄진경은 이부상서吏部尙書였다.

37) 保守

38) 爲賊所陷

39) 이 찬탈자는 염조閼朝라 불렸다. 펠리오 장서 No.3481의 한 둔황 필사본 조각에 티벳의 둔황 점령 시기 “부락사”이자 “하서 절도”(大蕃部落使河西節度)로 임명됐던 태원 출신의 염太原閼이라는 한 인물이 등장한다. 태원은 필시 산서성山西省의 현재 성도省都 지역일 것이다. 부락사와 절도라는 용어는 중국의 행정 직급에서 차용한 것으로, 적어도 둔황 지역에서 티벳인들은 편의상 중국식 용어들을 대부분 답습했다. 하지만 중국인들이 자국의 것과 거의

이 비문이 아무리 탐탁치 않다 해도, 더 나은 자료가 나올 때까지는 어쨌든 주정이 777년에 죽었고 둔황은 그로부터 10년 뒤인 787년에 완전히 티벳인들의 수중에 떨어졌다는 것이 가장 그럴듯한 가설이다.⁴⁰⁾ 그러니 만일

같다고 생각한 티벳의 직위를 한문으로 번역하기 위해 중국식 용어에 의존한 경우도 간혹 있을 것이다. 두 개 언어로 작성된 822년의 비문이 바로 그러한 경우로, 이 비문에는 순 티벳식 직위들이 전적으로 중국적인 명명법에 따라 번역돼 있다. 부락사의 임무는 하서 절도사의 책임 하에 있었다. 부락사는 원래 양주와 감주 지역에서 유목하는 위구르의 부족들 및 다른 유목 부족들을 관리해야 했었다.(이와사岩佐, 『동양학보』, 제23권, 제2기, 262쪽 참조) 언뜻 암시된 바 천불동의 중국 승려들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필사본 No.3481에는 이 염이라는 인물에 대한 한 편의 찬문이 담겨 있다. 그는 (티벳의) “천조”(天朝, Cour céleste)에까지 그에 관해 좋은 평판이 들릴 정도로 굉장히 인기 높은 한 명의 행정 관리로 소개돼 있다. 필사본은 이 관리가 티벳 왕에게 투항하기 위해 아들을 데리고 먼 길을 나서며 그의 아내와 여식들이 봉행한 불교 의례들에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 염이 둔황 함락 당시 티벳인들에 의해 통치권을 박탈당했던 그 염조일 리는 없다. 필사본은 둔황에서 티벳에 포섭된 관리들 중 염가閼家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도다.

- 40) 라진옥은 『보당서장의조전』(본서 167, 각주 1번 참조)에서 둔황의 함락 연대가 785년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지만, 내 생각으로 그가 부주의한 탓에 포위당한 둔황의 마지막 두 해를 놓쳤던 것 같다. 『감숙통지甘肅通誌』(1736년 판본, 제3권, 99b)에 따르면 사주는 정원(785-804)을 기점으로 완전히 티벳 수중에 들어갔다.(貞元後盡沒于吐蕃) 고조우(顧祖禹, 17세기)의 『독사방여기요讀史方輿紀要』(1901년 판본, 제6권, 21a)에서 말하는 연대도 그와 같다. 서송은 『서역수도기』(제3권, 19a)에서 781년을 제시하는데, 이는 석암(石岩, 『敦煌石室畫像題識』, 「서문」, 16b)과 마찬가지로 자일즈(J. R. A. S., 1914, 705)와 토마스(ibid., 1934, 86) 등이 채택한 바로 그 연대이다. 이 연대가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그 출처는 명시돼 있지 않다. 라진옥은 빼어난 석학이었던 서송이 어떤 사료에서 781년이란 연대를 취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사료란 813~815년간 완성된 작품으로 대체로 양질의 참고 자료인 『원화국현도지』(제40권, 7b)임에 틀림없다.(des Rotours, *Traité des Examens*, 102 참조. [본서 359-360 참조])

요컨대 사료들이 불일치하는 고로 중국에서는 사주의 최종적 함락에 관해, 그 사건과 근접한 시대에조차 제대로 알려진 게 없었던 셈이다.

870-880년(이 당시 오진眞은 찬문을 지어 적가翟家の 초상에 바쳤다. 펠리오 장서 2765번 필사본, 라진옥, 『막고굴석실비록莫高窟石室秘錄』, 13, *Notes d'archéologie*, fasc. 71, 동방문고, 상해, Commercial Press, 1923 참조) 무렵의 것으로 추정되고, 수 세대 전부터 둔황에 정착해온 작가 출신의 어느 승려에 의해 천불동의 한 동굴이 축성됨을 기념하는 작가

비翟家碑에서는 이 승려의 조부가 등장한다. 무인武人이었던 이 인물은 “봉천에서 어지러운 나라를 바로세움”(定國難於奉天, 『사주문록』, 蔣斧版本, 21b, 라진옥판본, 13a)에 가담했었다. 그런데 봉천(현재의 협서성, 건乾, 장안 북서쪽으로 75km에 위치)은 이희열李希烈과 주자朱泚의 반란 당시 덕종이 이곳으로 몸을 피했고 783-784년에는 포위당하기도 했던 곳이다. 장부는 적가비를 주해하며 이 대목에서 784년에 둔황이 여전히 건재했기에 지방 관리들이 중국 황제를 구하러 갈 수 있었다는 결론을 끌어냈다. 그러나 이 결론은 억지다. 이 해에 적가 출신 승려의 조부는 자기 고향에 없었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티베트인들이 당시 덕종을 구하러 상당한 규모의 병력을 파견했고, 이 병력은 중국 정규군과 공조하여 784년 5월 3일에 폭도들을 상대로 혁혁한 승리를 거두었던 사실이 있다.(『구』, 제196권 하, 3b, trad. Bushell, *J. R. A. S.*, 1880, 491; 『책』, 제973권, 18a-b; 『자』, 제230권, 52a) 티베트가 보낸 이 군사들 가운데 정복 지역에서 징집된 중국인들이 있을 수 있었다. 869년에 사망한 또 한 명의 둔황 승려 색익빈(/범)索義[工+凡/言의 합자 형태: 역자]의 일대기(장부가 편집한 펠리오 필사본, 『사주문록』, 10a-12b; 라진옥 편집본, 17a-20a; 야부키矢吹가 펴낸 슈타인 필사본, 『명사여운鳴沙餘韻』, pl. 제84항, 4와 『해설』, 241 및 그 이하. 펠리오 필사본 2021에는 이 승려의 일대기를 필사한 또 다른 편린 하나가 담겨 있다. 오진은 이 승려에 대해서도 찬문을 남겼다. 펠리오 필사본, 4660, 20번째 텍스트)에는 그의 조부된 자로 “대력大歷 년간(776-779)에” 둔황이 공격 받았을 당시 그 옹방함이가 돌보았던 색봉진索奉珍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吐蕃乘危敢犯邊境, 旋泊大曆, 以漸猖狂, 積日相持, 連營不散, 公誓雄心而禦悍, 鐵石之志不移, 全孤壘於三危, 解重圍於百戰, 등) 이 승려의 아버지 색정국索定國은 812년에 사망하는데, 티베트의 둔황 지배 기간에는 공무에서 손을 떼고 집거하며 불교 현자의 생을 살았으니, 전기 작가는 그를 일러 “돈오대승현자頓悟大乘賢者”라 한다. 이는 당시 둔황에 “돈오론”이 얼마나 널리 유포돼 있었는지 보여준다. 종교에 귀의하기에 앞서 848년 경 장의조의 군대에서 싸웠던 법심法心이란 승려에 대한 찬문송(펠리오 필사본, No. 4640)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가 속세를 떠났고, 고명한 스승을 찾아 삭발을 했다.”고들 말한다.(頓悟棄[棄]俗, 俊名尋師, 落髮割受, 家城洪源 등등)

자일즈는 런던의 한 필사본(Stein 5869, *B. S. O. S.*, IX, 21)에서 건중建中 8년 4월이란 연대 하나를 건졌다. 건중이 780년에 시작하니까 건중 8년은 787년이 된다. 하지만 건중은 784년까지만 이어졌다. 따라서 이 연대 산정은 787년 5월에 둔황이 적어오 3년 전부터 중국 다른 지역과의 연락이 끊겼으나 아직 티베트 체제에 익숙해진 것은 아니었다고 추측할 여지를 남긴다. 티베트의 체제에 익숙해졌다면, 티베트 시대의 다른 필사본들에서 보이는 것 같은 단순한 순환식 연대 표기법이 사용됐을 테니 말이다. 자일즈에 의해 알려진, 그의 연대 산정 방식에 따라 티베트 지배기로 추정되며 “혼란에 빠진 나라”에 관해 말하는 또 다른 한 필사본 간기(Stein 3485, , 22)의 “을사乙巳”에 관해서라면, 이는 둔황의 함락 뒤인 789년을 가리키거나, 아니면 장의조의 둔황 탈환을 동반했던 내전의 와중인 849년일 수 있다.

라싸 논쟁이 신해부터 술해 초까지 벌어졌다면, 중국식 역법에 대응하는 연도들 중 이에 해당하는 연도는 780년부터 782년 초까지라기보다 차라리 792년부터 794년 초까지였다. 마하연은 787년 혹은 788년경에 둔황을 떠나 라싸 논쟁 전까지 3년 내지 4년간 티벳에 체류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보면 우리의 필사본이 제공하는 정보들과도 제법 들어맞지 않나 싶다.

라싸 논쟁은 여하간 797년 이전에, 중국 사료들이 755년부터 797년까지 재위한 것으로 보는 왕의 후원 하에 개최됐을 것이다. 이 왕을 티벳 전통의 티송데첸으로 볼 이유는 충분하다.⁴¹⁾ 부편 역시 그를 논쟁의 주관자로 본다. 부편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문제는 결국 논쟁에 대한 부편의 이야기와 둔황의 한문 필사본이 들려주는 이야기 사이에서 찾아낼 수 있는 상위점들이 그 어떤 것도 충분히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중 주된 상위점은 라싸 회의의 결과에 있다. 부편에 따르면 왕은 중국인들에게 반대표를 던졌으리라. 우리의 필사본에 따르면 왕은 중국인들에게 티벳에서의 전법 활동을 계속할 권한을 주었을 게다. 왕의 판정이 내려진 날짜까지 밝히고 있는, 라싸 논쟁에 관한 이 한문 문헌의 서문 집필자가 주장하는 바는 최소한 그렇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인용하고 있는 칙령의 문구가 논적의 교리를 금한 것이 결코 아님을 짚어볼 것이다.

이 서문과 마하연의 회상부를 읽노라면 한편으론 이 중국인 화상이 논쟁 시작부터 줄곧 눈에 띄 정도로 방어적 태도를 취한다는 선연한 인상을 받는다. 질문 하는 쪽은 마하연이 아니라 인도를 대표해서 온 자들이다. 질문을 요구했던 쪽이 마하연인 것은 맞다. 하지만 이는 인도 측 사람들이 왕에게 마하연을 비난함으로써 초래된 상황이었다. 입장을 정당화하는 쪽은 마하연이지 인도 측 인사들이 아니다. 마하연은 첫 번째 회상부에서 왕에게 불교 공동체의 통일을 저해하는 이 논쟁을 끝내달라고 간곡히 청한다. 그는

41) 본서, 1, 각주 2번 참조.

고령의 나이를 들면서, 투박한 역설적 표현이 없지 않으나 자신의 체계는 설전舌戰으로 기우는 것과 거리가 먼 “말 없는” 신비주의임을 아울러 내세운다. 그는 제자들이 자신을 대신하길 원한다. 논쟁이 더 진행되어 두 번째 회상부에서 마하연은 거듭 자신의 노쇠함과 교리 논쟁의 무익함을 한탄한다. 그는 자신을 티벳으로 불러들여 선禪을 설하도록 한 이가 다름 아닌 왕 자신이었고, 자기 교리의 정통성을 왕이 일찌감치 확신할 수 있었던 연유와, 왕이 공식적으로 그 교리의 전파를 허락했던 사정을 환기시킨다. 그러니 승단의 분열을 차단하기 위해 속히 유리한 판결을 내려주시길! 모두가 공평무사하게 자기 마음에 맞는 수행을 선택하게 하시길! 세 번째 회상부는 자기 자신을 위한 일종의 변론으로, 온전히 호교론적인 마하연의 포지션이 특히 분명해지는 곳이다. 여기에서 마하연은 자신을 향한 논적들의 인신공격을 노골적으로 언급하고, 공들여 이를 하나하나 반박한다. 그는 스스로 “불법의 대가”임을 전면 부인하면서, 또 정치한 논변에서 논적들이 우월함을 인정하면서 정전正典들과 중국에서 만났던 고승대덕들의 권위를 방패막이 삼는다. 그는 자기 생애와 가르침의 도리를 장문에 걸쳐 변명하는 것으로 세 번째 회상부를 끝낸다. 흔히들 그를 정적주의로 몰아가곤 하는데, 한참 틀린 소리다.

요컨대 마하연의 처지는 그리 녹록치 않아 보인다. 공격의 주도권은 인도 진영에 있었고, 그것도 논쟁의 시작부터 그러했음이 분명하다. 논쟁을 기록한 두 자료가 그 버전은 달라도 이 점에 대해선 일치한다. 둔황 필사본의 서문에 따르면 논쟁은 마하연의 성공을 시기한 인도 논사들이 그를 상대로 제기한 무고에서 촉발됐다. 부핀은 저들의 적의가 티벳 불교도들을 자기 편으로 포섭했던 중국인 화상들의 영향력 증대에 대한 반발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리하여 다툼이 있었다.”고 덧붙인다. 이 다툼은 “학자들” 사이의 온화한 어떤 토론이 아니었다. 또 다른 정념들이 걸려 있었다. 암살 위협이 있었고,⁴²⁾ 마하연의 신봉자들이 자결했다고 부핀은 이야기한다. 그는 자살

의 원인을 패배에 따른 절망감에서 찾는다. 반면 서문을 쓴 중국인 역시 이들의 자살을 언급하지만, 그 죽음을 자기들 신앙의 패권을 위협하는 정치적 “도당”에 맞서 -중국식으로- 항의하고자 목숨을 바치기로 결심한 열렬한 초심자들의 수훈으로 기린다. 그럴 만도 한 것이, 그는 마하연의 논자들이 “왕국의 귀족들” 중 한 씨족, 다시 말해 자기들 나름의 목적을 위해 당파적 이해관계로 뭉치자고 담합한 한 무리의 티벳 대신들을 부추겨 마하연을 배척하게 만드는 술책을 부렸다고 밝히고 있으니 말이다. 이 대목에서 그의 증언은 각별한 관심을 끈다.

이것이야말로 부편과 티벳의 여느 편년사가들, 성직에 있으면서 글을 남긴 모든 저술가들이 단 한 마디도 하지 않는 그 사태의 단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종교적 사안과 정치가 서로 무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⁴³⁾ 또 논쟁의 주역들이 중국인이건 인도인이건 할 것 없이, 산스크리트어 문헌에서 보이는 그런 식의 순수 정신을 가진 이들 이기는커녕, 그들 자신 어떤 민족적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생각해볼 수도 있다. 중국 문헌의 서문은 이 점을 속이지 못할 것이다.

바야흐로 티벳은 제국주의로 불타오른 한 순간의, 폭발의 절정에 도달해 있었다. 티벳에 위대한 역사를 아로새긴 제국주의. 처음으로 문명을 한 모금 마시자 그 취기는 동물 가축을 걸친 이 산악민들의 머리끝까지 차오른다. 이란에서 반아온 쇠사슬 갑옷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에 덮어쓰고, 신하된 몽고인들이 공급하는 말을 달려 티벳인들은 아시아 저지대의 골짜

42) 까말라설라의 내장을 꺼내려 온 중국인 자객들에 대한 마지막 묘사는 종교적 신심에 따른 가필로, 인도 논사에게 순교자의 영광을 수여하기 위한 것이다.

43) 타치바나立花秀孝는 종교적 사안을 처리함에서 정치적 동기들이 지배적인 역할을 했었다고 생각할 정도다. 그는 둔황 필사본의 증언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마하연이 티벳 궁궐에서 우위를 점한 반중국 파벌의 희생자였음을 1934년부터 간파했다. (『西藏佛教史序說』, 『現代佛教』, 제119권, 55, 제125권, 31)

기와 평원으로 쇄도한다. 당唐 제국은 그들의 식욕을 돋우기에 안성맞춤이다. 20년 내지 30년 전, 진즉에 그들은 당 제국의 수도를 범한 바 있었다. 그들은 당의 서쪽 경계 일대를 모두 점령한다.

저 높은 정토의 나라,
그들은 티벳의 계곡으로 내려온다. ...
사람의 제국, 신들의 작품,
강대해져 무한에 가 닿았네.
그러자 여러 나라와 그 백성들
티벳을 도움⁴⁴⁾으로 삼네.⁴⁵⁾

44) 푸생이 번역한 「돈황편년사敦煌編年史」(아래 각주 참조) 원문에는 ‘數邦數族 吐蕃爲京’으로 되어 있다. 여러 나라와 백성들이 티벳을 도움으로 삼는다는 말은 티벳이 주위의 여러 나라를 복속시키고 라싸를 포함한 야르 룡Yar lung 지역을 티벳 문화와 정치의 중심으로 삼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역주)

45) 「돈황편년사敦煌編年史」, 푸생Toussaint 역, Bacot..., Documents..., 151. 8세기 중반에 황제를 알현할 당시 티벳인들은 다른 모든 야만족들보다 상석에 앉았다. 753년 봉래궁 함원전蓬萊宮含元殿(이에 대해서는 des Rotours, *Traité des fonctionnaires*, 335 참조)에서 알현이 있었을 때 한 일본인 사신은 자신을 한국(신라)에서 온 사신보다 하석에 앉힌 것에 대해 항의했다. 모 중국 장수가 중재에 나서 그를 신라의 윗자리에 앉혔다. 황제의 오른쪽(서쪽)에 있는 제일 상석은 늘 티벳에 돌아갔다. 투르크족은 아마도 당시 투르케스탄에서 벌어졌던 정치적 사태(751년 타슈켄트Tachkend 인근에서 한국인 장수 고선지가 패전한 일) 때 문이었는데, 사신을 보내지 않았다. 이 알현에서 중국인 장수가 일본에 유리한 중재를 하기 전에 야만인 사신들의 자리 배치는 아래 (가)와 같았다. 중재 후엔 (나)와 같이 되었다.

(가)		당 황제	
	티벳	한국	
서쪽			동쪽
	일본	아랍	
(나)		당 황제	
	티벳	일본	
서쪽			동쪽
	한국	아랍	

(『일본서기日本書紀』, 제19권, 천평승보天平勝寶 6년, 1월 30일.)[본서 360 참조]

당시 중국 역사가들이 인용하는 외교 문서들 속에서는 내홍을 겪으며 티벳인을 끌어들이 만큼 허약한 평원의 문명화된 중국인들에 비해, 이 고원 지대 기마병들의 동물적 기질, 문명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속에 감춘 이들의 도도함이 감지된다.⁴⁶⁾ 마하연은 강제로 라싸에 불러갔고 실은 한 명의

- 46) 티벳의 풍속을 평가할 때에도 중국 역사가들은 게르만족을 평했던 타키투스 Tacitus*를 상기시킬 만큼, 자기 비판적이고 감탄 어린 어조로 말한다. “전투가 벌어지면 후위의 부대들은 앞선 부대들이 전부 죽어야만 전진한다. 병사와 군마들은 두 눈을 빼고는 정밀하게 제작된 쇠사슬 갑옷(鑊子甲, 최근까지도 티벳의 보병과 기마병들은 이 갑옷을 입었다. Waddell, *Lhasa and its Mysteries*, 168, 172의 사진들. 에딘버러의 왕립 스코틀랜드 박물관에 훌륭한 견본들이 있다.)으로 전신을 갑판다. … 티벳인들의 법 적용은 무섭고 엄정하다. 토의에 부쳐진 사안이 있으면 밑에서부터 시작해 의견을 말하고(하급자에서 상급자로 올라가고), 사람들(만민)이 이롭다고 인정한 것만을 행동으로 옮긴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을 강하고 의연하게 만든다. 그들은 장정을 (또는 강자를) 존중하고 늙은이를 경멸한다. 어미는 아들을 따르고 아들은 아버지를 제압한다. 들거나 날 때 젊은이들은 노인을 앞서 간다. 그들은 전쟁에서의 죽음을 숭배하고 병에 걸려 죽는 것을 혐오한다. 싸우다 죽은 이들이 대대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다. … 도망친 패배자들에게는 머리에 여우의 꼬리를 매달아 이들이 명예를 더럽힌 자들임을 일생토록 알린다. …”(『통전』, 제190권, 10a-11a, 『당회요』, 제117권, 2b, 『구』, 제196권 상, 1b, 버셀 번역, 442, 『책』, 제961권, 17b 참조) 티벳을 소개한 이 글의 몇몇 문장들은 젊은 시절 장안의 태학太學에서 수학해 한문에 정통했던 티벳 사절 중중仲琮이 672년 5월의 알현 때 고종 황제에게 고한 정보들에서 발췌된 것 같다.(『당』, 제216권 상, 3a, 버셀 번역, 449, 『책』, 제961권, 17a, 제962권, 15b-16a, 제970권, 16b) — 다음을 참조하라. “전쟁에서 죽은 영혼들은 병에 걸려 죽은 영혼들보다 더 순결하다.”(헤라클레이토스 Héraclite, Diels, fragment 137) “평온한 영혼들이 안식에 드는 행복, 그들은 그 행복이 위험과 전쟁에 있다고 본다. 그들이 보기에 지고의 행복을 누리는 자는 전장에서 죽은 자이다. 늙거나 병들어 죽는 것은 치욕이다. 겁쟁이로 낙인찍는 것만큼 충분히 끔찍한 모욕은 없다.”(알라니 Alains족에 대한 Ammien Marcellin의 *Res gestae*, XXXI, iii) *L'Histoire des Ynglingar*에서, 자기 침대에서 죽는 오딘Odinn은 창에 찔린 상처 자국을 남기려 애를 썼다.(Georges Dumézil, *Mythes et dieux des Germains*, Paris, 1939, 27, 67) 타락한 문명인을 부각시키는 도구로서 야만인을 예찬하는 것은 중국 도가道家 문헌에 자주 나오는 하나의 테마(예컨대 동양 소설에 관해 H. Maspero가 번역한 텍스트를 볼 것. *Mélanges Maspero*, Le Caire, 1937, II, 377-387 = *Mélanges posthumes*, Paris, 1950, III, 93-108)이고, 유가儒家 문헌에서도 그러하다.(『좌전』, trad, Couvreur, III, 278 ; 『사기』, trad, Chavannes, II, 41-42)

포로나 다름없었다. 극동의 야만인들은 정신적 가치를 전리품으로 여기곤 했다.⁴⁷⁾ 티벳에서 이 늙은 중국인 화상은 라싸 논쟁의 기록 서문을 쓴 식사를 위시하여, 둔황의 다른 필사본들이 그 딱한 처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정복당한 지역의 다른 동향민들과 마찬가지로, 아주 불품없는 인물일 수밖에 없었다. 마하연의 불평투성이 청원, 대놓고 그를 반대하는 이 논쟁을 계속하길 꺼리는 태도 등은 이런 점에서 보아야 그 의미가 잘 드러난다.

당시 티벳 궁정에 중국을 혐오하는 파벌이 있었고, 그 파벌이 중국인 동업자들보다 정치적 결탁의 혐의가 덜한 인도의 불교도들을 지지했다는 것, 8세기 말의 중국과 티벳이 예사롭지 않은 긴장 관계에 있었던 만큼⁴⁸⁾ 이보

서양에도 동일한 테마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R. Gomard, *La légende du bon sauvage*, Paris, 1946을 볼 것. *푸블리우스 코르넬리우스 타키투스(Publius Cornelius Tacitus, 56? - 117?). 고대 로마의 역사가. 그의 출신에 대해서는 로마 공화정 시대 이래의 유서 있는 북부 이탈리아 명문 출신이라는 설과 남부 프랑스 지방에 해당하는 속주인 갈리아의 기사 출신이라는 설이 있다. 그는 로마에서 유명한 수사학자 마르쿠스 아페르 밑에서 고등 교육을 받았고, 77년에 아그리콜라의 딸과 결혼하여 정계에 진출했다. 98년에 장인 아그리콜라에 관한 전기글 쓰고 문필가로서 첫 발을 디딘다. 그리고 아마도 비슷한 무렵에 라인강 북부의 풍토와 그곳에 살던 게르만족에 관한 『게르마니아』를 쓴 것으로 보인다. 『게르마니아』는 원시 게르만 사람들의 검소하고 강건한 생활을 찬미함으로써 로마 사회의 퇴폐를 훈계할 의도로 저술한 것이다. 실제로 훗날 로마는 게르만족에게 멸망당한다. 다른 저서로 『역사 Histories』와 『연대기 Annals』가 있다.(역주)

47) 일례로 구마라집鳩摩羅什의 전기를 볼 것. (J. As., 1950, 384)

48) 중국인들이 784년 이희열과 주자에 맞설 지원군을 보낸 대가로 티벳에 약속한 땅을 넘기길 거부(본서 177, 주 1번)하는 농간을 부리자, 그 다음에는 격노한 티벳인들이 약속을 저버린다. 티벳인들은 청수 협정의 조항들을 뭉개고 786년 협서 서부를 유린하면서 장안을 위협한다. 그들은 황하 유역의 염주鹽州(염지鹽池)와 하주夏州(황산橫山)을 점령한다. 787년에는 새 협정 체결을 구실로 중국의 전권사절들과 그 수행단을 청수 북동쪽의 평량平涼으로 유인해 매복해 있다가 불시에 습격, 인질로 잡는다. (『구』, 제12권, 17b, CXCVI 하, 4b 및 그 이하. 버셀 번역, 494-497. 『당』, 제216권 하, 3a. 『자』, 제232권, 6b 및 그 이하. 『책』, 제998권, 9a. 본서 291의 주 1번을 참조) 『책부원귀』, 제956권, 9a가 지적하는바 이때부터 “티벳인들의 난입이 잦아졌고 그들의 약탈은 날로 그 정도를 더해가기에 이르렀으니, 국경에서는 더 이상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게 되었다.” 790년 중국인들은 북정(투르판 북부의 고성

다 더 그럴듯한 추정 은 없다.⁴⁹⁾ 그 시작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사 전체에 걸쳐 티벳은 중국과 인도 사이에서 고민하는 처지에 놓였었고, 티벳의 정치는 두 열강들(내지 당시 이 열강의 안주인들[즉, 문성공주와 티원공주:역자])을 맞대결시키는 내기를 걸면서, 또 정세의 매 국면마다 가장 덜 위험해 보였던 나라를 편들면서 언제나 민족적 독립의 보전을 지향했다.⁵⁰⁾ 독자는 「서문」이 마하연에게 귀의한 개종자들 중에서 성직자였던 이들과 함께 여성들, 특히 왕후 한 명과 대신들의 아내 약 30여 명만 언급하고 있음을 알아챌 것이다. 티벳의 대신이나 세속의 고위 인사는 단 한 명도 그 리스트에 등장하지 않는다. 게다가 왕이 면전에서 대론시킨 논쟁 주역들의 수적 불균형은 부편의 주장처럼 왕 자신 처음부터 인도인들에게 우호적이었음을 암시한다. 왕석王錫의 「서문」에 따르면 3명의 중국인이 30명을 상대한다. 부편에 따르면 왕의 오른쪽에 있는 마하연은 혼자인데, 왼쪽의 까말라설라는 신봉자들의 호위를 받고 있다.⁵¹⁾ 아마 왕이 공식적으로 중국 화상의 문파를 파문하진 않았겠지만, 그렇다 해도 궁지에 몰린 것은 화상의 문파였을 것이고 이 실패는 티벳 종교사의 일대 전환점이 됐을 것이다.

지역)에서 쫓겨났고, 이것으로 티벳은 세랑드의 식민지화에 대한 중국의 마지막 저항에 종지부를 찍었다.(Stein, *Ancient Khotan*, 533과 536에서 샤반Chavannes의 언급을 참조. 『당회요』, 제63권, 29a-b) 중국과 티벳의 관계는 다음 세기 초반에야 겨우 호전됐는데, 이는 티벳이 남으로는 남조南詔의, 북으로는 여러 적들의 공격을 받고 내부적으로 약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49) 우리에게는 이에 대한 실증적 증언들도 있다.(본서 26-27, 183의 주 4번, 196)

50) 나의 논고 “Aperçu historique des relations de la Chine et du Tibet”, *Cahiers de l'E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Suppl. H, 1948을 볼 것.

51) 오버밀러의 번역, III, 193에 나오는 바는 적어도 그렇다. 하지만 (Bhattacharyya, “Foreword to *Tattvasaṅgraha*”, XVII의) 다스Das 번역에 따르면 “중국 화상의 신봉자들에게는 8열의 자리가 할당되었는데 화상이 제일 앞에 있었고, 인도의 아짜리아Ācārya는 점문파漸門派가 자리를 온통 차지한 왼쪽 열 앞에 앉아 있었다.” 본서 11, 주 1번 참조.